

한국 대학의 교수방법, 이대로는 안된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사례

교수-학습 지원체제의 강화와 실천 사례

박 문 태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언뜻 떠오르는 대답은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공부만 하느냐?’고 복선을 깔아가며 유도 질문을 한다. ‘그래, 사회가 어지러울 때 같이 어지럽고, 요즈음처럼 세계화를 외칠 때 덩달아 외국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 회화를 가르치는 곳이야.’라고 빈정거리 볼 수도 있다.

대학의 교수에게 “외국의 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분교를 개설하고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옆에 아홉 정도는 “나는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연구하기도 바쁜데……’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

만을 잡으면서 10년이 다 되도록 논문 한편 발표 못하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은 “교수가 그런 것에 신경 쓰게 뻘어?” 하면서 신경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진짜 문제되는 교수가 아직도 많이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땅에 떨어진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과 권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정말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에는 철저히 요령과 게으름을 피우면서 개인의 욕구와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찻떼기 교수’는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완곡하게 학술적으로 연구하며 표현한 글이 있다.

“오늘의 한국 대학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수들에 대한 대학 안팎의 역할기대의 상승

을 초래하였다. 이제 교수들은 대학이 그 곳에 존재함으로써, 그 안에 그렇게 당위적으로 존재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학 안팎으로 일고 있는 역할기대에 부응함은 물론이려니와 그들 스스로 집합적 탁월성을 창출하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하위 사회체제로서 대학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전체에 대하여 개혁과 발전의 선도적 지도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교수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자성적 분석을 고양하는 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이성호, 『한국의 대학 교수』, 서울: 학지사, 1992, 12면)

불과 수 년 전에 제기된 자기반성의 내용이다. 여기에 덧붙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까지 따지고 들면 대학간의 차이와 더불어 대학 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많이 안다는 것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친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수들이 초·중등 교사들처럼 ‘가르치는 일’의 과정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 지원체제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어야 하는가를 울산대학교의 사례에 비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개념학습은 초등학교에서만?

이성호(1992)는 대학교수들의 수행책무를 네 가지로 종합하여 교육활동, 연구활동, 대외봉사활동, 대내행정 봉사활동의 넷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의 으뜸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교육활동이라

고 맨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성호(1992)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들의 수업방법에서 82%의 교수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60% 이상을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토의식 수업방법이 전 과목에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학부의 개론 과목 수업에는 참여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개척적이며 도전적인 학문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만으로도 권장될 만 한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들 중 89%는 자신의 수업에서 토의식 수업을 활용하는 부분이 39% 이하이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보수적 성질을 갖고 있고, 교수 자신들의 전공지식과 교육방법 간의 혼동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 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새롭게 연구된 수업기술을 소개하고 연습시켰어도 그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그 수업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그들 각자가 학교에 다닐 때 인상 깊게 배웠던 자기 선생님의 교육방법, 수업기술을 반복해서 써먹는 보수적 태도를 곧잘 보인다고 한다.

행여 토의식 수업방법을 사용한다 하여도 그 교수의 전공과목이 교수법이 아닌 바에야 터무니 없는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들을 만한 ‘분단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민족적 의식의 조화’를 토의식 수업방법을 적용하여 수업하면서 교수가 일부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샛길로 가는 토의내용을 균형있게 바로 잡아주지 않고 방관한다면, 토의식 수업이 아니라 교수 대리수업을 학생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서 그 교수는 주어진 시간의 수업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마쳤다고 말할 것이다. 토의식

수업의 기본도 모르는 교수이다.

수업 이론의 기초 중에는 교사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그 시간의 학습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다. 한 시간의 교수-학습 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주동적으로 목표를 향해 가는 집단과, 교사나 학생 둘 중의 하나라도 목표를 잘 모르고 활동하는 집단의 학업성취를 비교하면 두 집단간에 의의있는 차이를 보여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비단 초등이나 중학생뿐 아니라 대학과 일반 성인들의 학습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간에 내 강의식 수업을 듣고 이런 원리의 이해와 개념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과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대개의 교수-학습 활동 상황에 적용될 것이다.

대학에서 한 시간의 학습목표는 구성원칙으로 보아 한 학기의 과목 목표에서 나온다. 왜 그 과목을 16주 동안 강의하고 과제를 물을 요구하며 평가하려고 하는가 되새겨볼 일이다.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이것을 교육과정 구성원칙과 그에 따른 평가계획이라고 한다.

대학의 교수는 초능력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세울 필요도 없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강의식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전공과목의 개념들을 학습시킬 때, 추상적 개념을 자기만 이해하는 또 다른 추상적 개념들로 풀이해도 되는가?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목표가 있고, 이들을 여러 교과별로 다시 해석한 교과목표가 있으며, 이것이 다시 학년별로 세분화되고 학기당 차시별로 조정되고 안배되어 한 시간의 수업이 '진도'

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도 같은 요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대학만 한 학기 한 권의 교재가 주어지고 3분의 1만 강의되며 나머지는 대학생들에게 맡겨져도 교육 소비자들의 항의도 없고 어떤 감독자(?)의 조사도 받지 않는가? 기가 막힐 노릇은 대학마다 고유하게 있어야 할 그 대학의 교육목표를 빈 말로 놓아두고, 20년 넘게 한 대학의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온 교수가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를 몰라도 20년 동안 잘 가르쳐왔다."고 통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목 하나라도 제대로 잘 가르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대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생들에게 맞는 내용을 강의했다면 커다란 문제가 된다. 대학의 대부분의 학습은 추상적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실험실습의 전공영역이 있어도 추상적 개념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수업기술이 대학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다음에 검토할 지원체제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분명할 때 어떤 시청각 기자재를 그 특성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원체제가 잘 되어 있어도

울산대학교는 진리, 자주, 봉사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성과 덕성을 함양하여 창조적 탐구인, 자주적 지성인 그리고 유능한 직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

표로 삼는다고 천명하면서 하위목표로 15개 항목을 두고 있다. 기실 정의적 목표의 위계적 분석이 어렵듯이 15개 항목도 서로 겹치거나 상·하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만큼은 수시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인지되고 교수-학습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수들은 자기 전공과목만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자기 학교 교과의 일 절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합창단원 같은 특수집단에 불과할 정도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수들은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과의 학생이 4년의 과정을 마쳤을 때, 이러한 수준의 전문 직업인의 능력과 대학교육을 받은 교양인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모든 대학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아래에서는 울산대학교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체제를 소개하기로 한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뉴 미디어에 의한 표현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교육환경에 새로운 방식의 학습설비와 교육 기기의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개방화에 따른 교육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경쟁에서 가장 급한 것이 위의 학습설비의 현대화일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체제와 과정, 방법으로는 다가올 정보화사회의 교육관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조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현대화, 과학화, 인간화된 교육시설(시청각교육관)을 갖추고 수업자료의 지원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

도록 매체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학교육원 안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를 연습하기 위해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상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나라방'을 꾸며 놓았다. 예컨대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의 연습은 쉽게 그 방에서 상황이 꾸며진다. 방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요리하고 작업하고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꾸밀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일반 교양 및 기초 과정의 영어회화 연습과 듣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어학실습실도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시설은 외국어 전공 학생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또 시청각교육관 건물 안에 설립된 교육매체센터는 매체제작실, 소형영사실, 스튜디오, 편집 및 구조정실과 다매체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 기기 대출실 및 정비 영선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매체센터에서는 학교내의 각종 시청각 교육기기를 총괄 운영 관리하며 그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 및 수업을 돕는다. 이것은 곧 교육방법의 향상과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무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시청각 교구의 보관, 관리, 대여
- ② 시청각 교구의 활용을 위한 시범교육
 - 대출용 기기의 사용교육
 - 시청각 기기 활용방안 상담 및 시범
- ③ 다양한 교육매체 개발과 보급
 - 교육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급
 - 영상, 음향, 광고 등 각종 교과 관련 매체제작의 상담과 지원
 - 컬러복사, O.H.P.의 복사, 도면복사 등 일반 교수자료 제작 지원

〈표〉 울산대의 각종 대출용 기기

품 명	규 격	기 능
O.H.P.	3M 955 3M 4000 3M 213AKD	OHP 필름 자료를 스크린에 투사해 주는 기능 가지고 있으며, M4000은 REMOTE ZOOM CONTROL 가능
T.V.	금성 CR840K(21")	일반 재생용 TV 수신기로 RF 채널수용
V.T.R.	금성 VCP-100 금성 GHV-S 9990	110v전용, 플레이 기능 S-VHS, 녹화(예약기능), 캡션 7헤드
SLIDE PROJECT	KODAK 5600K (140TRY) 4600K (80TRY) 3AT(80TRY)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투사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5600K는 별도의 스크린 없이 자체 스크린 보유
액정비전	SHARP XV-H30U	시청각 교육 수업이나 세미나, 영화감상시 사용하며, 자체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앰프 시설 없이 사용 가능. 화면크기 40"~ 150" 33만화소, 수평해상도 400본, 앰프, 스피커 내장
POLAROID CAMERA (즉석 카메라)	IMPULSE AF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시 구도 측정 및 즉석에서 사진을 확인한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삼각대, 필터 5종, 케이스
영사기	HOKUSHIN 16mm	16mm 영화상영시 사용 가능
휴대용 오디오 세트	200W×2, MIC 2	각종 야외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AMP SET로 노래 반주 기능 포함, 노래 반주 및 자막 기능
8mm VIDEO CAMERA	금성 GS-HEI	각종 행사시 기록보관용 또는 재생용 삼각대, 가방, 배터리, VTR 기능 내장, S-VHS 기능, 해상도 400본, 41만화소, 8배 전동 줌
VHS VIDEO CAMERA	금성 GS-V6	각종 행사시 기록보관용 또는 재생용 삼각대, 가방, 배터리, VTR 기능 내장
실물환등기	GENESIS DP-20	실제의 물체를 스크린에 투사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책이나 OHP, 기타 자료 등의 사용이 가능함
이동용 스크린	PTO102(120cm×120cm)	스크린이 없는 강의실 및 연구실 사용

④ 학내 TV 방송 운영

- 학내 CATV 운영
- 외국어 교육의 실습을 위한 위성방송의 송출, 학내의 각 외국어 연구실과 휴게실 등에 설치

⑤ 학내의 시청각 교육설비 및 기기의 정비와 점검

- 대출용 기기의 정비, 점검

- 학내 시청각 교육설비의 기술 상담 및 제작 지원

⑥ 어학교육원-연구원의 지원

- 위성방송의 어학자료 녹화 및 송출
- 다매체 강당의 스크린 영어 영화 상영

이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교육, 광학, 비디오, 오디오, 정비, 기술지원 등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게는 관리부에서 교육매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업무와 센터의 시설 및 교육기기의 관리, 대여 등의 접수와 상담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술부의 전문인력 확보이다. 전공교수가 업무를 관장하며 학내의 시청각 교육 설비 및 교육 관련 기기의 정비, 점검, 최신 시청각 기기의 매입과 이들을 이용한 각종 자료제작의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한다.

울산대학교 매체센터의 특징은 각종 매체의 제작 지원이다. 매체제작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제작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촬영은 5일 전, 비디오 촬영은 10일 전, 기타 매체로서 컬러복사, OHP복사, 도면복사 등은 제작 2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인원 8명이 매체센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울산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출용 기기를 제시하면 앞의 <표>와 같다.

아울러 외국어 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영어는 캐나다에

서, 일어는 후쿠오카에서, 중국어는 남경에서 단기 또는 1학기 동안 체재하면서 집중 연수를 받게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과목에 대한 실제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배려이다.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초청 시간강사 활용도 영어에 한해서 교양영어 회화 시간에 제공되고 있다.

이상의 것들은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조치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외형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 개혁의 추진은 가르치는 교수의 교수방법의 이해와 적극적 실행에 있다. 대학의 교수는 전공 지식과 인품만으로는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박문태/서울대 사대 교육심리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교육학의 이해』, 『교과교육론』 등이 있고, 창작동화집 『하얀 거짓말』을 발표했다.